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속도 낸다

산림청 완도수목원 현장 점검
내일 타당성 평가 용역 보고회
국비 1900억원 투입 국책 사업



최병암 산림청장과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국립난대수목원 예정 부지인 완도수목원을 둘러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완도수목원에 들어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최병암 산림청장과 신우철 완도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완도수목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산림청 제4차 수목원진흥계획에 따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난·아열대 산림 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며 19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완도수목원을 대상으로 확정했다. 완도수목원 400ha 부지에 전사·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존·복원지구, 연구·지원지구, 배후지원시설 등 5개 권역을 특성화하는 프로젝트다.

완도군과 산림청은 오는 9일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평가 준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대비해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현장설명에서 주관관객인

청소년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산악열차 개설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비교·분석 결과 모노레일보다는 산악열차가 기존의 완도수목원 입도를 따라 조성이 가능해 산림 훼손이 적고 투자비 및 유지·관리 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완도수목원에 들어설 때부터 병풍처럼 펼쳐진 난대수 자원에 감탄했다"며 "이런 산림자산을 전 국민이 하루 빨리 향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평가 준비에 사활을 걸어 국립난대수목원 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은 85만명에 달하고, 1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관광, 힐링의 중심지 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서해해경 폐축전지 800만원 상당 취약층 지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명이 다한 폐축전지(사진)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한걸음 더 동행에 무상 양여했다.

해경은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축전지 교체작업을 하면서 나온 폐축전지 279개(800만원 상당)를 매각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로 정전시 배터리 등에 축적된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전원 장치를 말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한걸음 더 동행은 전달된 물품을 매각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경비과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지능형 스마트가든 3곳 추가 조성

무안군에 실내 근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가든 3곳이 조성됐다.

스마트가든은 산업단지, 공공시설, 의료기관의 실내 공간을 활용해 관수, 조명, 공조 제어시스템 등 자동화된 관리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실내 생육에 적합한 스마트가든의 식물은 쾌적한 공기를 내뿜어 긴장과 불안, 피곤, 우울감 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유지관리 또한 효율적이다.

군은 올해 무안병원, 해상안전체험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등 3곳에 실내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6000만원을 들여 청계농공단지과 삼향농공단지 내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한 바 있다.



무안병원에 조성한 스마트 가든.

김산 무안군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된 실내정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하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식물을 보며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서 일주일 살기

목포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10월까지 4회차 20개팀씩 모집



목포대교가 보이는 스카이라이프에서 관광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목포시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한 달 여행하기', '일주일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낭만향구 목포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감상을 SNS에 공유·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는 목포를 구석구석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해 4회차로 나눠 운영한다.

1회차는 '어반스케치, 목포를 담다'로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의 모습을 살펴본다.

2회차 '목포 9미를 맛보다'는 전남 서남권의 싱싱한 수산물들이 모이는 목포에서 9미(味)를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고 즐긴다.

3회차는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 목포를 만나다'로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역사공간을 비롯해 놀이와 야경이 아름다운 대반동, 춤추는 바다분수와 해상무대, 불꽃쇼가 한데 어우러지는 해상판타지쇼 등에서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엿본다.

4회차는 '설렘의 시작, 목포문학에 스며들다'로 근대문학의 산실인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열리는 문학박람회 참가한다.

회차별로 20개팀(팀당 1~4인)을 모집하는 가운데 1~3회차는 7월 9~26일까지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8월16일~9월8일까지다. 4회차는 8월16일~9월6일까지 모집하고, 10월5~12일 운영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기간(4~6박) 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1박 당 4만~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관광 및 문화체험비를 할인받는다.

일주일 살기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 인생샷 찍기 등 간단한 미션이 주어지고, 참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목포해수청, 태풍·호우 대비 등대 특별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요 항로상 등대시설을 특별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목포·신안·진도·완도해역 등대 56기, 등부표(부유식·사진) 76기, 등표(고정식) 42기 등 174기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목포·신안·진도·완도해역의 연안 여객선 주요 통행로와 사고 발생 해역 항로표지시설의 기능을 점검 점검하여 선박사고 예방 및 항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야간 통항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목포대교 및 천사대교 등 교량표지의 야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해상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과 긴급 복구태세 확립으로 선박의 안전한 뱃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